

“봉사행으로 부처님 법향 시방세계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6월 28일 한마음 봉사단 창단

봉사 실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봉사단이 창단돼 화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6월 28일 정기법회에서 '한마음봉사단' 창단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포교와 봉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욱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은 창단 발원문, 임명장 수여, 봉사단장 인사말, 지원장 스님 격려사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350여명이 참가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과 대행 큰스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안에 이미 갖춰진 마음법의 무한 능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충실한 한마음봉사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희 봉사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봉사를 하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겠다”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밝고 평화롭게 마음 내며 봉사단에 함께 하시는 여러 도반님들과 물려서지 않는 정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마음봉사단 청년팀 설해인 법우는 발원문에서 “저희 한마음봉사단 모두는 행을 통해 준다는 생각 없이 봉사하며 나와 나를 돌로 보지 않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 모두에게 이익 되는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 봉사단은 창단식 바로 다음 날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6월 28일 정기법회에서 '한마음봉사단' 창단식을 봉행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봉사의지 다지고자 창단식 봉행 각 신행단체 및 어린이회까지 합심 음성 공양, 군부대지원 등도 펼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이 한마음봉사단 이영희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

6월 29일 영도노인복지관, 천마재활원을 비롯한 8곳의 복지관을 방문하고 한방 비누 1700개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과 함께하게 된 송선화 씨는 “평소 봉사는 하고 싶었지만 소속된 단체가 없어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봉사를 위해 방문한 장애인 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봉사를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한마음봉사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각 팀별 팀장과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축했다. 또한 각 팀은 봉사 활동을 재능에 따라 전문적으로 나누는 등 효율성을 더했다. 각 팀은 거사 중심 문수팀, 보살들로 구성된 보현팀,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까지 빠짐 없이 참가한다. 그 외 템플스

테이를 보조할 템플스테이봉사팀, 군부대 봉사팀도 함께해 포교를 위해 큰 도움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한마음 봉사단에 직접 참여 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해 동참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앞으로 한마음 봉사단은 7월에 봉사단 교육을 받고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에 정식 등록한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구청 및 관공서와 연계해 봉사 지역 활동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학생팀, 어린이팀 선법합창단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관, 요양보호기관 등을 방문하고 선법가 음성 공양 공연도 펼친다. 또한 초, 중, 고, 대학의 경우는 봉사 점수를 인정받아 학교 내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하며 일반인의 경우 봉사 마일리지 가 누적되는 특혜도 받는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도량에서 펼쳐진 수국 향연

태종사, 6월 27일~7월5일 수국축제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수국의 꽃망울이 부산 태종대 앞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연출했다. 6월 27일~7월 5일 동안 '제11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부산 영도 태종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6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말을 이용해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6월 28일, 7월 4일~5일 어린이 한복쇼, 초대 가수 초청, 민요, 국악 등 다양한 축하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1983년 스리랑카 국무장관으로부터 선물 받은 보리수, 2010년 그리스 국립박물관 장에게 기증받은 올리브 나무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태종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큰 환희심을 안겨줬다.

현재 태종사 경내에는 네덜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30여 종의 수국 5천그루가 만개했으며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뿜내고 있다.

대부분 40여년 동안 태종사에서 직접 가꾼 꽃으로 여름 장마철에 만개하는 특성에 맞춰 매년 이맘 때 축제가 개최된다. 흙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져 '살



6월 27일~7월 5일 동안 '제11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부산 영도 태종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아있는 리트머스 시합지'로 불리는 수국은 색깔이 칠면조처럼 바뀌어서 칠면화(七面花)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6년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태종사 수국축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7호인 태종대의 절경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으로 부산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만유성 식물인 수국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태종대와 생태학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안거 수행 점검, 더욱 힘모아 정진”

7월 13일 조계종부산연합회 반결재

하안거 재가안거를 통해 수행정진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수행 점검은 물론 수행방법 공유, 경험 나누기 등을 위한 반결재가 개최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주진은)는 7월 13일 오후2시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하안거 재가안거 반결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기 수행법에 따라 참선, 다라니, 사경, 기도 등 수행 모습에 나눠 참가하며 각 모습에는 2명의 스님이 함께 참여해 점검하고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결재는 수행 경험과 수행과정 중에 느꼈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도반들과 친밀감을 쌓고 수행의 결의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참가를 독려했다.

현재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에는 해인정사, 선암사, 영주암, 관음사, 가야사 등 18곳의 조계종 사찰 신도 10여만 명이 참가한 불자까지 2,000여 재가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목련존자의 효심 이어갑니다”

부산 경남 우란분절 맞아 행사 이어져

목련존자의 극진한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이 다가온다. 우란분절을 맞아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현생정도를 발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입재를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우란분절 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8월 28일 오전 10시다.

통도사는 “백중을 맞아 49일간 대덕 스님을 모시고 정토를 발원하는 환희로운 법석을 마련한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5)382-7182

홍법사(주지 심산)도 우란분절을 맞아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5일~8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회향은 8월 28일 오전 10시다. 홍법사는 “매 재일 마다 제방의 큰 스님을 모시고 특별 법석을 마련한다”며 “참가자들이 백중 기도 동안 법석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508-0345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량)에서도 우란분절을 맞아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동명불원은 7월 11일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7일~8월 28일 동안 매주 금요일 108배·독

동명불원 등 49일 기도 입재

통도사·홍법사 법석도 마련

송·주지 스님 법문 등이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 108배 참회로 시작해 오전 10시 천수경 및 아미타 경, 지장경을 독경하며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법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동명불원측은 “우란분절은 목련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이라며 “선망부모와 과거 7대 선망부모까지 천도하는 법회에 참가하는 복된 인연을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626-4337

경남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도 백중을 맞아 49일 동안 천도재를 봉행한다. 7월 11일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9~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며 마지막 회향은 백중일인 8월 28일이다.

49일 동안 매일 사시기도 후 극락전에서는 아미타경 독송과 염불을 진행한다. 주지 여해 스님은 “백중 49일 동안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자들이 참가하길 바라며 정종사에서 목련존자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것이다”며 참가를 독려했다. (055)366-6867

하성미 기자

청도 이서중고 호국영령 위령대제

무일학원 청도이서중고등학교가 6월 25일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거행했다. 이 위령제는 한국전쟁 당시 3학년 학생으로 군에 입대해 순국한 4명의 혼을 달래기 위해 실시되었다.

행사는 천도제 및 위령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쟁 참전 학도병인 이태희 님과 박재욱 님, 50사단 박재봉

군법사(대위)를 비롯해 이서중고등학교 재학생 200여명과 총동창회원 등이 참석했다.

무일학원 이사장 주진 스님(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주지)은 “오늘 위령제로 어린 나이에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호국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리는 바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보고 통일안보 교육의 장이 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 등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평마을로 100번